

아빠랑 은별이랑 둘레길서 만난 꽃·바람·사람

아빠는 백무동 계곡을



“아빠, 섬진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부녀의 지리산과 섬진강 여행은 그렇게 시작했다. 지리산 자락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빠는 일곱 살 난 딸 아이의 질문을 받고 놀랐다. 순간 “경남 하동 약양에 내려온 지 벌써 6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섬진강 여행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로 쉬는 날이면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림 도구들을 챙겨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부터 강이 끝나는 남해 바다까지 1년7개월을 걸었다.

그렇게 섬진강을 여행하며 나는 대화들을 엮어 ‘아빠랑 은별이랑 섬진강 그림여행’(소년한길·2011)을 펴냈던 화가 오치근(43)씨와 딸 은별(11·약양초 4년)이 이번에는 지리산을 걸었다.

최근 출간된 ‘아빠랑 은별이랑 지리산 그림여행’(소년한길 간)은 부녀가 하늘 아래 첫 동네 신원마을부터 아빠의 고향 남원 운봉읍, 백무동 계곡, 용유담, 남사예담촌, 화암사를 거쳐 노고단까지 지리산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엮은 책이다. 아빠가 그린 서정적인 그림과 글에 더해 은별이의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인상적이다. 부녀가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느낌으로 그렸다.

“딸의 질문으로 시작된 여행이 어느덧 5년째가 됐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지리산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빠도 딸도 한층 성장한 셈이죠.”

그동안 여행에는 오씨의 아내이자 화가인 박나리(37)씨와 막내딸 은솔(6)이도 함께했다. 오씨 가족은 때로는 좁은 길을 때로는 넓은 길을 걸었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는 등 수없이 갈라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지리산의 길을 찾아다녔다. 지리산 자락의 이웃들과 농부들을 알게 됐고, 나무와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법을 배웠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재발견하기도 했다.



화가 오치근씨 초등4학년 딸과 '지리산 그림여행' 펴내

“은별이도 다른 아이처럼 스티커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아직은 어린아이잖아요.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며 지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리산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산 열매를 따 먹기도 하면서 끈 힘을 내 저만치 뛰어가 아빠를 부르기도 했어요.”

은별이는 여행 내내 ‘아빠는 어렸을 때 지리산 뚝네에서 뭐 하고 놀았어요?’ ‘지리산에 댐이 만들어지면 예쁘고 신기한 바위들을 볼 수 없게 돼요?’ ‘이 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등의 물음을 던지기도 했고, 야생화에 은별이만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청학동 삼성궁에서는 수염이 긴 ‘한울선사’를 보고 놀라 “도술을 부리는 것 아니냐”며 속삭이기도 했고, 할머니가 건넨 자기 얼굴보다 더 큰 표고버섯을 보고 아빠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도시의 삶을 접고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모두 만족하고 지내 나가요.”

오씨가 가족의 손을 잡고, 약양으로 내려온 것은 은별이가 두 살 되던 해인 지난 2005년.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민중미술을 하던 그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했다.

우연히 백석 시인의 동화시 12편을 만나면서 그림책

작가가 됐다. 그림책을 그리면서 아내와 함께 2~3년간 ‘그림책 버스 뚜뚜’를 몰고 제주부터 임진각까지 다니기도 했다. 그때 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은별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 약양 빈집에 정착했다. 약양은 조선대 미대 후배인 아내와 남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추억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동화작가를 꿈꾸기도 했던 은별이는 요즘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박창선 선생님께 판소리를 배우기도 해요. 저는 앞으로 아이와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또 계절마다 ‘차와 문화’에 글과 그림을 연재하고 있는 아내와 전국 곳곳 차와 관련된 유적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들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은별이는 계곡에 떨어진 단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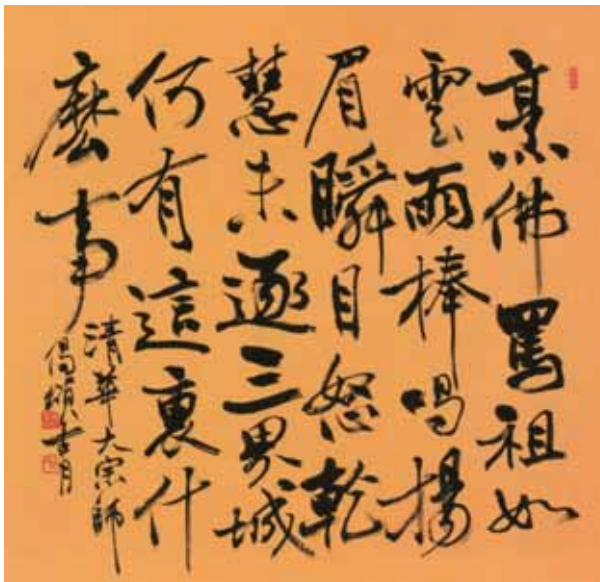
시립무용단·길림시가무단, 한 무대에

한·중 수교 21주년 기념, 오늘 문예회관

광주시립무용단과 길림시 가무단 교류 공연이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한·중 수교 2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시립무용단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김유미 단장이 안무한 모던 창작 발레 ‘빛고를 관타지’를 무대에 올린다.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던 한 청년은 5월 광주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명령에 의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그는 죄의식에 싸여 사회의 이단아로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구원받는다. 단원들의 몸짓과 함께 영상예술이 어우러진 무대다.

길림시 가무단은 ‘연연유위’ ‘양산백과 축영대’ 8개 작품을 선보인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경순 작 '개승(偶頌)'

청화스님 법향을 느낀다 열반 10주기 순천·곡성서 전시회

청화(1923~2003) 스님은 40여 년 동안 토굴에서 하루 한 끼 공양하고, 밤에도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면서 후학양성에 매진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으로 꼽힌다.

청화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법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재)성륜불교문화재단은 ‘청화 대중사 열반 10주기 추모 고월 박경순 선사화(禪書畫) 초대’ 전국 4개 도시 순회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서울 백악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순천 시립건강문화센터(7월6~12일·061-749-6755),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7월14~20일·1544-6711), 곡성 옥곡미술관(7월22일~8월11일·061-363-7278)을 순회한다.

선서화 작가 박경순씨가 청화 스님이 생전에 남긴 오도송

(悟道頌)과 개승(偶頌)을 작품으로 옮긴 선서화 140여점을 선보이며, 청화 스님 친필 작품 5점과 아산 조방원 선생의 달마대사도 2점도 함께 전시된다. 아산 조방원 선생을 사사한 박씨는 아산 선생을 통해 청화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성륜사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윤타 스님은 “큰스님이 열반에 드신지 어느덧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스님의 법향이 우리들 가슴에 잔잔히 흐르고 있다”며 “스님의 법향에 머물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가슴을 울리는 청화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작품에 옮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

이승엽침대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지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